대법,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첫 심리

광주지법은 25일 4명 호적정정 심리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4명의 트랜스젠더의 성(性) 전환자 호적정정 신청에 대한 심리가 오는 25일 광주지법 가정지원에서 열린다.

11일 광주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의 호적정정 신청은 모두 8건. 법원은 이중 지난해 신청된 4건의 호적 정정 신청에 대해 모두 인용(허가)결정을 내렸고, 올해 신청한 4건에 대해서는 25일 심리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도 오는 18일 한국 사법 사상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갖는다. 대법원은 성전환 시술 경험이 있는 의학계 인사와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종교계 인사를 1명씩 초청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신청은 2002년 7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윤모씨와 같은 해 12월 영화배우 하리수의 성별 정정이 허가된 이후 매년 잇따르고 있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지금껏 내려지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에는 1·2심에서 호적 정정신청이 불허된 성전환자 3명의 신청사건이 계류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소외계층 복지문제 해결위해

"백만 慈悲軍 창설하자"

전남대 법대 김지수 교수

국방의무의 남녀평등과 저출산·핵가족·고령화시대에 따른 소외계층의 복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한 '백만 자비군(慈悲軍) 창설론'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전남대 법과대학 김지수 교수는 13일 전남대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열리는 법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백만 자비군의 창설론-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생로병사 복지보장과 국방의무의 남녀평등 현대화'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

주요 골자는 남성 전투력 위주의 군대는 국토방위를 위한 평화군으로 삼고, 여성 보위력 중심의 '자비군'을 창설, 노인·중증장애인·난치병환자·임종환자 등의 보건 요양과 결손가정 아동의 양육 등 사회 복지 업무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군필자 가산점의 경우도 남녀차별이니 무조건 폐지하는 것보다는 국방의무를 이행한 남성과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하안거 돌입 스님들, 월드컵 축구 볼 수 있을까

일부 사찰 '조용한 응원' 허용할 듯

2002년 해인사 '반짝 해제'

대흥사 등 투표로 결정

송광사·백양사는 불허

하안거(夏安居)에 들어간 스님들은 독일 월드컵 경기를 볼 수 있을까?

12일부터 하안거가 시작된 절집들이 내심 고민에 쌓여있다. 오는 8월8일까지 3개월간 계속될 하안거와 월드컵 기간(6월10일~7월10일)이 겹치기 때문이다. 선방(禪房)에 칩거, 묵언수행(默言修行)과 1일 삼천 배, 화두(話頭)에 매달려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묻는 스님들의 마음 한 켠에도 박지성·박주영·안정환 등 아드보카트 '23인 전사(戰士)'들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참선을 중요시하는 불교계의 큰 행사인 안거 중엔 선방에 불이 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게 원칙. TV 시청이나 신문도 허용되지 않는다. 조계종에서는 매년 전국 100여 곳 선원(禪院)에서 2천200여 명의 수좌(首座·참선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안거에 참여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올해 120여 곳의 사찰이 하안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이 규칙이 깨졌다. 조계종 최대 수행사찰인 경남 합천 해인사가 하안거 중 한국과 폴란드전 시청을 위해 '반짝 해제(解制)'했던 것이다. 당시 해인사 측은 고심 끝에 스님들의 단체시청은 금지했지만, 종무소와 도서관 등에서 삼삼오오 TV를 보는 것은 묵인했었다.

▲안거(安居)=불교에서 스님들이 하절기(4월 보름~7월 보름)와 동절기(음력 10월 보름~정월 보름) 3개월 동안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몰두하는 것.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북방 불교에서만 실시하는 독특한 수행법 가운데 하나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02년 4강 신화를 일궈낸 한국팀의 경기에 관심을 보이는 스님들이 많아 한국전이 열리는 날에는 사찰에서도 '조용한 응원전'이 예상된다.

해남 대흥사 총무인 법인 스님은 "하안거 기간 동안 스님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행에만 정진하게 된다"면서도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대중공사(大衆公事·모든 스님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일)를 통해 월드컵 시청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양림사 지주 덕수 스님도 "규모가 작은 사찰의 경우 경기 시청이 자유로운 편"이라며 "다만 길거리 응원 등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의 경우 사찰 내 TV가 없어 시청이 원천적으로 어렵고, 장성 백양사는 지난 2002 월드컵 때도 경기 관람을 금지했었다.

하안거에 들어간 수좌 스님이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는 청규(淸規·사전규칙)를 어기고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선방에서 쫓겨나거나 공개사과를 해야한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11일 "달속의 계수나무 베어내니 밝은 빛이 더욱 많아짐이로다. 여우와 살쾡이는 자취를 감추고 사자는 황금 털을 뽐내는구나"라는 결제(結制·안거를 시작하는 것) 법어를 내렸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젊은이들이 광주 충장로에서 붉은 색깔이 주조를 이룬 월드컵 관련 의상과 응원 도구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레즈 고 투게더'

〈Reds go together〉

월드컵 한 달 앞… 거리는 붉은 물결

독일 월드컵을 한 달 앞두고 '레즈 고 투게더'(Reds go together·'붉은악마'의 응원 슬로건) 물결이 거리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의상·도구· 노래· 춤 등 월드컵 응원 분위기를 형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1일 오후, 충장로에는 월드컵을 앞두고 선보인 빨간색의 '레즈 고 투게더' 티셔츠를 입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티셔츠 외에도 머플러·두건·막대 풍선 등 다양한 응원용품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티셔츠를 판매하는 '베이직 하우스' 윤정성씨는 "한국 대표팀의 공식 색깔인 '빨강'이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여성을 위한 민소매 티셔츠, 탱크탑 등 다양한 디자인의 의상과 두건, 팔에 두르는 수건·모자 등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선영(25·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월드컵 시즌에 마음껏 축제 분위기를 누릴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렌다"며 "한국팀 응원을 겸한 나만의 개성을 연출하는데 신경을 쓴다"고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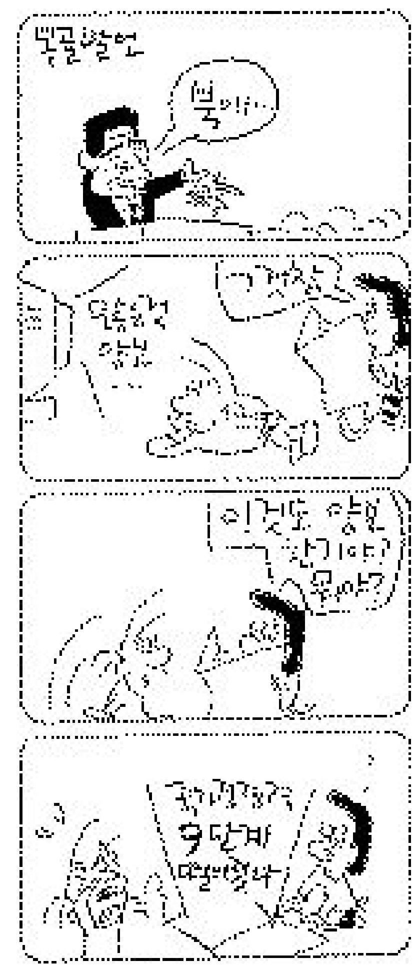
월드컵 응원가도 요즈음 인기 폭발이다. '붉은악마' 공식 응원가인 그룹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와 월드컵 공식 응원가인 그룹 '신화'의 '원스 인 어 라이프 타임'(Once in a life time) 등이 매일 충장로에 울려퍼지고 있다. 동아리 모임이나 노래방에서 응원가를 부르는 사람들도 많다.

포털사이트 '엠파스'(www.empas.com)가 지난 9일부터 시작한 응원가 설문조사에도 11일 현재 1천525명의 네티즌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의 45%인 686명은 윤도현 밴드의 '록 버전 애국가'를 꼽았고, 버즈의 '레즈 고 투게더', 마야의 '아! 대한민국'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월드컵에 온 거리에 쏟아졌던 전국민의 응원가 '오~ 필승 코리아'는 영화배우 김수로가 선보인 '꼭짓점 댄스' 곡으로 진화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윤참 〈6826〉 김종두



5억원대 가짜 나이키신발 밀수 적발

쌍나팔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오태영)은 11일 인천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중국산 가짜 나이키신발 밀수조직을 검거했다고 발표.

○…세관에 따르면 중국산 가짜 나이키신발 5천320켤레(시가 5억원 상당)를 밀수입한 조직을 적발, 이중 총책 이모(42)씨 등 조직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신발과 여성용 슬리퍼 610켤레를 압수했다는 것.

○…세관은 지난 4일 화물선을 이용, 중국으로부터 가짜 나이키신발 등을 인천항으로 운송, 인천시 중구 항동 A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보세창고 직원과 짜고 밀수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3일간에 걸친 잠복수사 끝에 현장을 급습했다고 설명.

○…조사결과 이들 조직은 보세창고에 반입한 밀수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한 뒤 사전에 수입통관해 창고에 보관중인 슬리퍼를 이번에 반입한 정상물품인 것처럼 신고하는 속칭 '바꿔치기' 수법을 시도했다고.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